

황룡강변 노란꽃 유혹...장성의 가을 눈부시네

추석 연휴 가볼만한 곳



황룡강변을 노랗게 물들인 꽃들. 장성에서는 오는 10월 13~29일 황룡강 일대에서 이 꽃들을 테마로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를 연다. <장성군 제공>



황미르 해바라기 정원

추석 연휴가 무려 10일이다. 모처럼 찾은 고향, 집에만 들렀다 가기에 헛헛하다. 그렇다고 어디로 갈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미리 알아보려니 들어야 할 품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낭만적 분위기를 즐기며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 장성이다. 오전에 일찍 나섰다가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명소들이 적지 않다.

◇강변에 노란꽃 잔치 = 추석 연휴 장성 황룡강변에 가면 시야 가득 노란꽃들이 들어온다.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해바라기가 19만㎡ 강변 곳곳에 흐드러졌다. 움직이는 곳곳이 그대로 '사진 촬영소'다. 노란 가을 꽃들이 햇빛을 튕겨내며 눈부시게 나부끼는 모습이 장관이다.

장성군이 다음달 13~29일 황룡강 일원에서 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에 선보일 꽃들이다. 축제가 열리기 전이라도 강변 가득 펼쳐진 꽃을 눈과 가슴에 담아갈 수 있다.

노란꽃잔치는 지난해 찾은 관람객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노란색'을 도시의 상징색으로 삼아 컬러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장성군이 자연 그대로의 꽃을 테마로 삼으면서 누런 용이 살았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입힌 게 관람객들 발길을 붙잡는 데 주효했다.

축제 때 황룡강은 '역'을 테마로 하는 정원들로 단장,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 번 봤는데...'라고

내달 13~29일 황룡강 노란꽃 잔치 코스모스·해바라기 따라 가을맞이

축령산 오솔길 걸으면 힐링이 절로 편백힐링타운서 캠핑·스파 피로 썩~

장성호 수변길 명품 산책 정취 가득 아이들과 홍길동 테마파크서 체험도

지나치기엔 아쉽다는 얘기가.

◇오솔길 걷고 편백향 머금은 가을 공기를 =장성 축령산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오솔길을 걸으며 가슴 속 깊이가 맑은 공기를 불어넣기에 딱 좋다.

축령산에는 전국 편백림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편백나무가 많다. 수령 50년 안팎의 편백나무 250만 그루가 백백한 숲을 이루고 있다.

독립기인 춘원 고(故) 임종국 선생이 지난 1956년부터 정성껏 가꾼 편백이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phytoncide)를 많이 발산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피톤치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숲에 들어서면 도시의 짙은 공기과 찌들고 지친 몸을 정화해준다. 덕분에 '치유의 숲' '힐링 숲'으로 불리며 '삼림욕 성지'로 군림하고 있다.

장성 '편백힐링타운'도 편백힐링스파, 글램핑, 삼림욕 등 캠핑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해 명절 후유증을 털어내기엔 좋다.

모든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편백힐링스파의 경우 편백효소욕실, 편백족욕, 편백반신욕, 삼림

욕, 편백스파 등 편백향 물씬한 공간으로 나누어 피로를 씻을 수 있도록 했다.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수변길은 연휴 뒤 편안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품 산책로로 유명하다. 걷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숲·호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입소문이 났다. 전체 7.5km 구간을 트레킹 코스로 조성했으며 호수가를 따라 설치된 1.23km 길이의 나무데크 길은 새벽녘이면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2시간40분이면 넉넉히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험하지 않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돼 지루할 새가 없다.

◇아이들과 놀아볼까 =홍길동 테마파크는 자녀와 함께 가볼만한 도심 주변 여행지로 꼽힌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홍길동이 살았던 생가와 그의 발자취를 복원한 곳이다. 안채, 아래채, 사랑채, 문간채 등을 포함한 전통 한옥 목구조로 건립됐다. 홍길동 생존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일본에 남아 있는 홍길동 거주지 유적과 '홍길동 산성'으로 알려진 공주 무성산성을 참조해 지은 산체체험장도 조성됐다. 홍길동은 실존 인물로 장성에서 태어나 1500년(조선시대 연산군 6년) 전후로 활동한 농민 무장대의 지도자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편백향 가득한 축령산



홍길동 테마파크 산책 체험



장성호 나무데크길

www.gulbimoa.co.kr

전통식품의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전통 영광굴비

실속 20,000원~
선물용 100,000원~

전통 고추장굴비

500g x 1ea
70,000원~

전통 + 갈아만든 고추장굴비 (특허 제 0296790호)

배맛, 매실맛, 양파맛 *200g *400g 세트
인삼맛, 더덕맛 *200g *400g 세트
전통 + 녹차맛 *230g *400g 세트

유명수산 영어조합법인 | Tel. (061) 356-8100, 8060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 106-3 | Fax. (061) 356-8006